

# 육아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구체적 토양 만들기를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제3대 소장 이영입니다.

스티브잡스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천재성이 현대 인류역사를 바꿀 만한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 입양부모의 양육방식 덕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미국사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괴짜천재였지만 양부모님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남과 다른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기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가치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가치는 그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사회적 양육가치와 육아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는 부모의 출산의지에 직결됩니다. 이렇듯 아이들의 출산과 육아문제는 부모 혼자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가정과 부모, 그리고 사회가 공조해야 하는 일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육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설립된 지 6여년 정도 되었지만, 초저출산의 사회적 위험과 급변하는 글로벌사회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육아환경을 진단하고 최적의 육아지원정책과 유아교육·보육 전략을 마련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해왔으며 그동안 많은 가시적 성과들을 축적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2012년 시행을 앞둔 취학전 만 5세 아동을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였으며, 국내 최초 아동발달중단연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구체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국제자료와 견주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보육 연구 외에도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네트워크와 다문화가족, 그리고 통일대비 남북한가족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였으며, UNESC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국제자료 생산에도 참여함으로써, 정책적 시야와 국제교류의 역량을 넓히고 미래 우리나라 인적자원이 뺏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출산과 육아를 통한 공익과 복지의 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적 요구에 당면해 있습니다. 영유아와 가족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아젠다의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미래 인적 자원의 건강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행복한 육아,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제2, 제3의 스티브잡스를 길러 내는 육아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구체적 토양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영